



꽃가루 운반 곤충 연간 247조원 경제효과

꿀벌 등 꽃가루를 운반하는 곤충이 과일과 야채, 커피, 카카오, 향신료를 비롯한 작물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효과가 연간 1,530억 유로(약 24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 통신은 20일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가 미국 과학잡지 '생태 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 꽃가루를 옮기는 각종 곤충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전세계 농업 생산액의 9.5%를 차지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INRA는 논문에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벌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 꿀벌이 멸종될 경우 관련 작물과 제품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 소비자에게 1900억 유로(약 307조원)에서 3100억 유로(약 500조원)

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INRA는 관측했다.

INRA는 이런 추정 피해액이 벌꿀이 절명했을 때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서울=뉴시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2008년 09월 21일자 뉴시스

